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54)	봉헌 (217)	성체 (180)	파견 (16)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엄지로 이마, 입술, 가슴에 대고 작은 성호를 그으십시오.
- \* 이마는 머리의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잘 깨닫고,
- \* 입으로는 깨달은 바를 전파 또는 고백 하며,
- \*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 속에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서나 매일미사 책을 보지 말고 합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8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15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2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9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30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7/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7/14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7/21	김 요아킴/ 고 안나	8/25	황 가롤로/
7/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1	손 아놀드/ 손 쟈마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8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8 월 12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새로 임명 되셨습니다.**

교육부장: 박 벨라멧다, 홍보부장: 정 루시아 두분의 임명을 축하

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임원직을 수락해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님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 입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의 생신 축하 만찬** 8 월 19 일(일) 저녁 6 시

신부님 생신 축하 저녁만찬이 히스패닉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사랑의 슬픔

-정진민 세례자 요한 | 前 MBC교우회장-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둘 중, 한 친구의 이름은 배두였고, 세례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셋은 하루라도 안보면 못 견딜 정도여서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둘을 부추겨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배두와 같은 반인 다른 친구를 만나 넷이서 함께 놀다가, 유난히 키 작은 그 친구가 붙어 난 밀물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배두야~!”하고 부르자 그를 구하러 갔던 배두는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움켜잡고 물속으로 잠기는 장면을 목격한 저는 파출소와 경비정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하루가 지나서야 사체를 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오셔서 사태를 수습했고, 사체를 보지도 못하게 한 부모님들 때문에 남은 우리 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루 종일 평평 울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허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허무함’은 ‘삶과 죽음’에 대한 엄청난 의구심으로 대체되었고, 대학입시도 실패하여 재수를 하면서 철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학 후, ‘불교학생회’에 들어가 3천 배를 해야 하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계를 받아 불심을 다지던 차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8월 피약별 아래 흙먼지 풀풀 날리는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포악한 조교가 실수한 훈련병을 너무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먼지투성으로 쓰러진 그의 눈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느님, 도대체 어찌하여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처절한 절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넓은 유리판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지면서 하늘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과 동시에 “불성이 인성이라고? 저런 짐승 같은 조교의 인성에서 불성은 무슨 불성~”이라는 생각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다음 실내 교육 시간, 저는 덩치 큰 동료의 등 뒤에 숨어 앉아, 50분 동안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한없이 불쌍한 연민’의 오열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슬픔은 하느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슬픔’이었고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쁨을 품고있는 사랑은 반드시 슬픔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더욱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기뻐하셨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 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서울주보 에서-